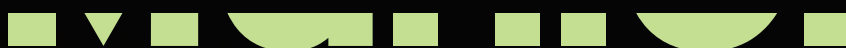


Mahler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5번

KBSSO X MYUNG-WHUN CHUNG'S MAHLER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2026. 3. 13.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Mahler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말러
G. Mahler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 중
Lieder aus <Des Knaben Wunderhorn>

⌚ 31'

라인강의 전설 Rheinlegendchen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 Wo die schönen Trompeten blasen
지상의 삶 Das irdische Leben
원광 Urlicht
기상나팔 Revelge
북 치기 소년 Der Tambourg'sell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말러
G. Mahler

교향곡 제5번 c#단조
Symphony No.5 in c# minor

⌚ 70'

I. 장송 행진곡 (Trauermarsch)
II. 격렬하게, 최대의 격정으로 (Stürmisch bewegt, mit größter Vehemenz)
III. 스케르초 (Scherzo)
IV. 아다지예토 (Adagietto)
V. 론도-피날레 (Rondo-Finale)

✧ 총 소요시간: 125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정명훈

Conductor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26년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과 교향악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는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대 최초의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바스티유 오페라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40여 종의 음반을 주요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다.

그는 200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다.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역대 최연소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를, 202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훈장 2등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악가상’을, 2013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재단으로부터 ‘평생음악상’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음악평론가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1988년과 2015년에 각각 수상하였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Baritone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리톤 중 한 명인 마티아스 괴르네는 오페라와 가곡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열 오페라 하우스, 파리 국립오페라, 빈 국립오페라와 같은 세계 정상급 오페라 극장에서 보탄, 암포르타스, 마르케, 푸른 수염, 보체크 등의 역을 맡아왔다.

그는 사이먼 래틀, 키릴 페트렌코, 구스타보 두다멜,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프란츠 벨저-뫼스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정명훈, 파비오 루이지, 안드리스 넬슨스, 만프레드 호네크, 야프 판 츠베덴, 야닉 네제-세갱을 비롯한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연해왔으며, 주요 오케스트라와 페스티벌 무대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더불어 네 차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바 있는 탁월한 음반 아티스트인 괴르네는 영국 로열 필하모닉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확장시키고 있는 그는 곧 툴루즈에서 오페라 <살로메>의 무대 연출가로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최근 주요 활동으로는 유럽, 북미, 호주, 아시아 등지에서 마리아 조앙 피레스, 다닐 트리포노프와 함께 슈베르트 연가곡을 선보였으며, 외르크 비트만의 신작 <Schumannliebe>의 세계 초연 무대에 올랐다.

괴르네는 피에르 로랑 에마르,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알프레드 브렌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마르쿠스 힌테르하우저, 알렉산드르 칸토로프, 비킹구르 올라프손, 마리아 조앙 피레스, 다닐 트리포노프 등의 저명한 피아니스트들과 협연하고 있다.

바이마르 출신인 그는 한스-요아힘 바이어,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를 사사했다.

말러 /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 중

G. Mahler / Lieder aus <Des Knaben Wunderhorn>

작곡 1887년~1901년

초연 개별 곡마다 초연 시기와 장소가 다름
 - 최초 발표된 곡들: 1892년 전후, 오스트리아·독일 지역
 - 전곡이 하나의 가곡집으로 정리되어 연주된 것은 1905년 이후

연주시간 약 31분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는 본디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 아힘 폰 아르님과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1805~1808년 3권으로 출간한 독일 민요 시집의 이름이다. 두 사람은 독일 각지를 돌며 민요와 민속시를 수집해 엮었고 그 중 일부는 자유롭게 각색했으며 일부는 스스로 창작했다. 이 시들은 베버,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 여러 작곡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말러는 27살 때인 1887년부터 3년 동안 처음으로 이 시들에 곡을 붙였는데, 이때 작곡한 9곡은 피아노 반주로 되어 있다. 이후 1892년, 함부르크 시립극장 수석지휘자로 재직할 때부터 말러는 다시 이 시집의 시 일곱 편에 관현악 반주가 붙은 가곡을 작곡했고, 피아노 반주가 붙은 기존의 곡 중 다섯 곡에 새로 관현악 반주를 붙였다.

이 곡들은 특히 말러의 교향곡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원광’은 교향곡 2번의 4악장이 되었으며 ‘세 천사가 노래하네’는 교향곡 3번의 5악장, ‘천상의 삶’은 교향곡 4번의 피날레가 되었다.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는 성악이 빠진 채 교향곡 2번 3악장이 되었고 ‘여름의 작별’도 교향곡 3번에 사용되었다.

말러는 이 시들을 과감하게 변형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자신만의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 한 세기전 수집된 시들을 자신의 시대로 현재화했다. 그는 서정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독일 가곡과 달리 이 곡들에 유머와 발라드적 서사성, 그로테스크함, 실존적 허무 등 폭넓은 정서를 반영했다.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라인강의 전설(Rheinlegendchen)

강에 빠진 반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온다는 민담을 담고 있다. 쾌활한 멜로디가 담긴 소박한 3박자 렌틀러 춤곡이다. 반주부는 현악부와 목관 5중주만으로 되어있으며, 단순한 선율선과 대조적으로 과감한 조바꿈이 동반된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1, 오보에1, 클라리넷1, 바순1, 호른1, 현5부

Bald gras’ ich am Neckar, bald gras’ ich am Rhein. bald hab’ ich ein Schätzel, bald bin ich allein!	어느 때는 네카어 강가에서 풀을 베고, 어느 때는 라인 강가에서 풀을 베지. 어느 때는 내게 연인이 있고, 어느 때는 나 혼자라네!
Was hilft mir das Grasen, wenn d’Sichel nicht schneid’t was hilft mir ein Schätzel, wenn’s bei mir nicht bleibt!	낮이 들지 않는데, 풀을 베어 무엇하랴 결에 머물지 않는데, 임을 두어 무엇하랴!
So soll ich denn grasen am Neckar, am Rhein so werf’ ich mein goldenes Ringlein hinein.	네카어 강가에서, 라인 강가에서 풀을 베어야 한다면, 그 강물 속으로 내 작은 황금 반지를 던지리라.
Es fließet im Neckar und fließet im Rhein, soll schwimmen hinunter in’s Meer tief hinein.	반지는 네카어 강을 따라 흐르고 라인 강을 따라 흐르며, 그것은 멀리 바다 깊숙이 떠내려가겠지.
Und schwimmt es, das Ringlein, so frißt es ein Fisch! Das Fischlein soll kommen auf’s König’s sein Tisch!	그렇게 떠내려간 작은 반지를, 물고기 한 마리가 삼킬 것이고! 그 물고기는 왕의 식탁에 오르리라!
Der König tät fragen “Wem’s Ringlein sollt’ sein?” Da tät mein Schatz sagen “Das Ringlein g’hört mein!”	왕은 물을 것이다. “이 반지는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 내 연인이 대답하리라. “그 반지는 제 것입니다!”
Mein Schätzlein tät springen, Berg auf und Berg ein, tät mir wied’rum bringen das Goldringlein mein!	내 연인은, 산을 오르고 또 산을 넘으며, 다시 내게 돌아와 이 황금 반지를 되돌려 주리라!
Kannst grasen am Neckar, kannst grasen am Rhein! Wirf du mir nur immer dein Ringlein hinein!	그대는 네카어 강가에서 풀을 베고, 라인 강가에서도 풀을 벨 수 있겠지! 그저 언제까지나 그대의 작은 반지를 내게 던져 주오!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Wo die schönen Trompeten blasen)

한 인간과 전장에서 죽은 군인의 유령이 나누는 대화를 그려냈다. 서두에 호른과 트럼펫, 현악부가 악음기를 달아 밤의 신비로움을 묘사한다. 죽음 앞에서의 평온한 결말은 교향곡 9, 10번의 마무리를 예견하는 듯하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호른4, 트럼펫2, 현5부

Wer ist denn draußen und wer klopft an, der mich so leise wecken kann?	누가 저 밖에서 문을 두드리나요, 이렇게 살며시 나를 깨우는 이는?
Das ist der Herzallerlieble dein, steh' auf und laß mich zu dir ein! Was soll ich hier nun länger steh'n? Ich seh' die Morgenröt' aufgeh'n, die Morgenröt', zwei helle Stern'. Bei meinem Schatz, da wär ich gern', bei meinem Herzallerlieble!	나,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오, 일어나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오! 어찌 여기서 더 서 있어야 하오? 아침노을이 떠오르는 것이 보이오, 아침노을과 두 개의 밝은 별이. 내 연인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 가장 사랑하는 이여!
Das Mädchen stand auf und ließ ihn ein, sie heißt ihn auch willkommen sein. Willkommen, lieber Knabe mein, so lang hast du gestanden!	소녀는 일어나 그를 안으로 들였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네. 어서 와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군요!
Sie reicht' ihm auch die schneeweiße Hand. Von ferne sang die Nachtigall, das Mädchen fängt zu weinen an.	소녀는 눈같이 하얀 손을 내밀었네. 멀리서 나이트िंग게일이 노래하고, 소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네.
Ach, weine nicht, du Liebste mein! Auf's Jahr sollst du mein Eigen sein, mein Eigen sollst du werden gewiß, wie's keine sonst auf Erden ist! O Lieb auf grüner Erden!	아, 울지 마오, 내 사랑이여! 일 년 뒤면 그대는 내 사람이 될 것이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명 나만의 사람이 되리라! 오, 이 푸른 세상의 내 사랑이여!
Ich zieh' in Krieg auf grüne Haid, die grüne Haide, die ist so weit! Allwo dort die schönen Trompeten blasen, da ist mein Haus, von grünem Rasen!	나는 전쟁에 나가네, 저 푸른 들판으로, 그 푸른 들판은 너무도 멀구나!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그곳에, 푸른 잔디로 덮인 나의 집이 있네!

지상의 삶(Das irdische Leben)

불안하고 섬뜩한 무궁동(동일한 리듬 패턴이 변화 없이 거듭되는 것)의 현악 반주를 배경으로 아이와 엄마가 대화한다. 아이는 배가 고프니 빵을 달라고 호소하고, 엄마는 곧 빵을 만들어 주겠다고 달래지만 마침내 빵이 나왔을 때 아이는 굶어 죽었다. 미완성작인 말러의 10번 교향곡 중 3악장 ‘연옥’을 연상케 한다는 평을 받는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2, 오보에2, 잉글리시호른, 클라리넷2, 바순2, 호른3, 트럼펫1, 심벌즈, 현5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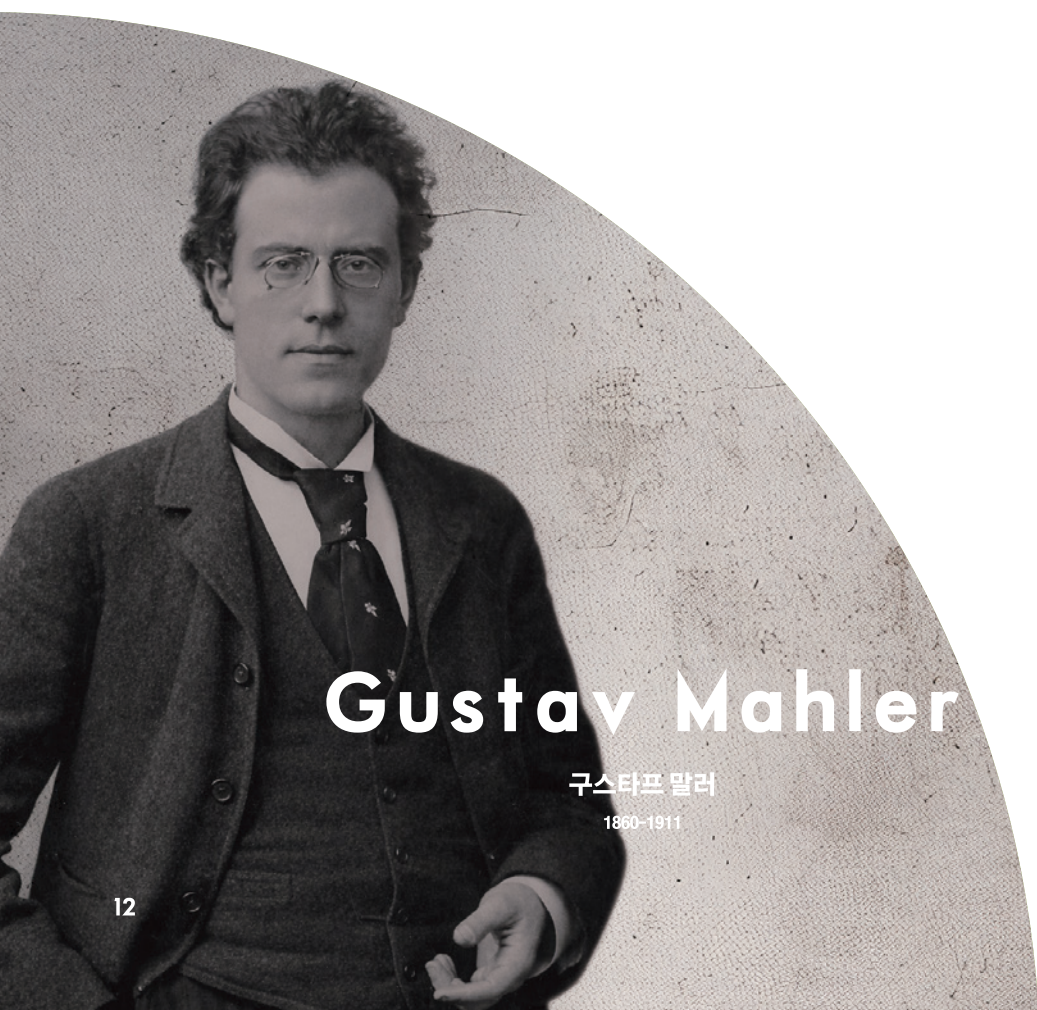
Mutter, ach Mutter! es hungert mich, Gib mir Brot, sonst sterbe ich. Warte nur, mein liebes Kind! Morgen wollen wir ernten geschwind.	어머니, 아, 어머니! 배가 고파요, 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렴,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일이면 금세 곡식을 거둘 거란다.
Und als das Korn geerntet war, Rief das Kind noch immerdar. Mutter, ach Mutter! es hungert mich, Gib mir Brot, sonst sterbe ich. Warte nur, mein liebes Kind, Morgen wollen wir dreschen geschwind.	곡식을 거두고 나서도, 아이는 여전히 외쳤다. 어머니, 아, 어머니! 배가 고파요, 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렴,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일이면 금세 곡식을 타작할 거란다.
Und als das Korn gedroschen war, Rief das Kind noch immerdar. Mutter, ach Mutter! es hungert mich, Gib mir Brot, sonst sterbe ich. Warte nur, mein liebes Kind, Morgen wollen wir backen geschwind.	곡식을 타작하고 나서도, 아이는 여전히 외쳤다. 어머니, 아, 어머니! 배가 고파요, 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렴,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일이면 금세 빵을 구울 거란다.
Und als das Brot gebacken war, Lag das Kind auf der Totenbahr.	그리고 빵이 다 구워졌을 때, 아이는 관 위에 누워 있었다.

원광(Urlicht)

교향곡 2번 '부활'의 4악장이 된 곡이다. 제목은 '가장 처음의 빛', '근원의 빛'을 의미한다. 죽어 천국 입구에 이른 주인공에게 천사는 돌아가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거부한다. 이른바 '임사체험'에서 내세의 입구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체험기를 떠올리게 한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2, 바순2(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2, 글로켄슈필, 하프, 현5부

O Röschen rot!	오, 붉은 장미여!
Der Mensch liegt in größter Not!	인간은 가장 깊은 곤궁 속에 있고,
Der Mensch liegt in größter Pein!	인간은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도다!
Je lieber möchte' ich im Himmel sein!	차라리 나 하늘에 있고 싶어라!
Da kam ich auf einen breiten Weg.	나는 넓은 길 위에 이르렀네.
Da kam ein Englein und wollt mich abweisen.	그때 작은 천사가 와서 나를 막으려 했네.
Ach nein! Ich ließ mich nicht abweisen!	아, 아니요! 나는 물려서지 않겠노라!
Ach nein! Ich ließ mich nicht abweisen!	아, 아니요! 나는 물려서지 않겠노라!
Ich bin von Gott,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니,
und will wieder zu Gott!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리라!
Der liebe Gott wird mir ein Lichtchen geben,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내게 작은 빛을 주시리니,
wird leuchten mir bis in das ewig selig Leben!	영원히 복된 삶에 이르도록 나를 비추리라!



Gustav Mahler

구스타프 말러

1860-1911

기상나팔(Revelge)

적에 맞서 용감히 싸우던 부대원이 모두 죽은 후 해골로 다시 모여 승리를 거둔다. 현악기의 콜레노(활의 나무 부분으로 현을 때리는 주법)가 뼈가 부딪치는 소리를 묘사한다. 유절 가곡 형식을 넘어 발전부와 재현부가 있는 소나타 형식에 가깝다.

편성 성악 솔로,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3, 팀파니, 작은북, 큰북, 트라이앵글, 심벌즈, 탐탐, 현5부

Des Morgens zwischen drei'n und viere	새벽 세 시에서 네 시 사이에
da müssen wir Soldaten marschieren	우리 병사들은 행진한다
das Gäblein auf und ab	골목을 오르락내리락하며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라
mein Schätzel sieht herab!	내 사랑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네!
Ach Bruder, jetzt bin ich geschossen	아, 형제여, 나는 총을 맞았다
Die Kugel hat mich schwere schwer getroffen	총알에 심하게, 아주 심하게 맞았다
trag' mich in mein Quartier	나를 숙소로 옮겨주게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라
es ist nicht weit von hier!	여기서 멀지 않다네!
Ach Bruder, ich kann dich nicht tragen	아, 형제여, 나는 그대를 업고 갈 수 없네
die Feinde haben uns geschlagen!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네!
Helf' dir der liebe Gott!	하느님께서 그대를 도우시길!
Trallali, trallaley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라!
Ich muß, ich muß marschieren bis in' Tod!	나는, 나는 죽음까지 행진한다!
Ach Brüder, ihr geht ja mir vorüber	아,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지나쳐 가는구나
als wär's mit mir vorbei!	마치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인 듯이!
Trallali, trallaley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라!
Ihr tretet mir zu nah!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Ich muß wohl meine Trommel rühren	나는 북을 쳐야 한다
ich muß meine Trommel wohl rühren	나는 북을 쳐야 한다
trallali, trallaley, trallali, trallaley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sonst werd' ich mich verlieren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라진다
trallali, trallaley, trallala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라
Die Brüder, dick gesät	형제들은 뻥뻥이 뿌려진 듯
sie liegen wie gemäht	베어낸 풀처럼 누워 있다

Er schlägt die Trommel auf und nieder
er wecket seine stillen Brüder
trallali, trallaley, trallali, trallaley
sie schlagen und sie schlagen
ihren Feind, Feind, Feind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llala
ein Schrecken schlägt den Fe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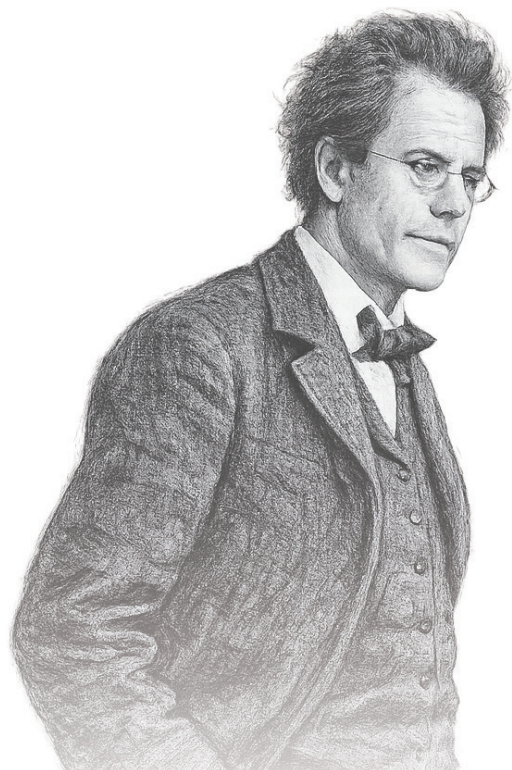
Er schlägt die Trommel auf und nieder
da sind sie vor dem Nachtquartier schon wieder
trallali, trallaley, trallali, trallaley
In's Gäßlein hell hinaus, hell hinaus!
Sie zieh'n vor Schätzleins Haus
Trallali, trallaley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
sie ziehen vor Schätzleins Haus, trallali

Des Morgens stehen da die Gebeine
in Reih' und Glied, sie steh'n wie Leichensteine
in Reih', in Reih' und Glied
Die Trommel steht voran
daß sie ihn sehen kann
Trallali, trallaley
trallali, trallaley, trallalera
daß sie ihn sehen kann!

그가 북을 위아래로 두드린다
그는 잠들어 있던 형제들을 깨운다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그들은 싸우고 또 싸우며
자신들의 적, 적, 적을 향해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랄랄라
공포가 적을 친다!

그가 북을 위아래로 두드린다
그들은 어느새 숙소 앞에 이르렀다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밝은 골목으로, 밝은 골목으로!
연인의 집 앞으로 행진해 간다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라
연인의 집 앞으로, 트랄랄리

아침이 되면 유골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종대와 횡대로, 묘비처럼 늘어서 있다
줄 맞추어, 또 줄 맞추어
북 치는 이는 맨 앞에 서서
그녀가 그를 볼 수 있도록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리, 트랄랄라이, 트랄랄레라
그녀가 그를 볼 수 있도록!



북치기 소년(Der Tambourg'sell)

사형선고를 받은 어린 북치기가 교수대로 가는 행진을 그린다. 실의에 잠긴 듯 힘없는 표현이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지상의 삶'이나 '기상나팔'처럼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리듬으로 우화적이고 파리한 느낌을 강조한다. 말러는 어린 시절 집 부근의 부대에서 들려오던 북과 트럼펫 위주의 군악에 친숙했으며 이 점이 이 곡과 '기상나팔' 등 여러 곡에 반영되었다.

편성 성악 솔로, 오보에2(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2, 베이스클라리넷,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4, 튜바1, 팀파니, 작은북, 큰북, 심벌즈, 탐탐, 첼로, 더블베이스

Ich armer Tamboursg'sell!
Man führt mich aus dem G'wölb!
Wär ich ein Tambour blieben,
dürft' ich nicht gefangen liegen!

O Galgen, du hohes Haus,
du siehst so furchtbar aus!
Ich schau dich nicht mehr an!
Weil i weiß, daß i g'hör d'ran!

Wenn Soldaten vorbeimarschier'n,
bei mir nit einquartier'n,
wenn sie fragen, wer i g'wesen bin,
Tambour von der Leibkompanie!

Gute Nacht! Ihr Marmelstein!
Ihr Berg' und Hügelein!
Gute Nacht, ihr Offizier,
Korporal und Musketier!
Gute Nacht,
ihr Offizier!
Korporal und Grenadier!
Ich schrei' mit heller Stimm,
von Euch ich Urlaub nimm!
Gute Nacht!

나는 가엾은 북치기!
사람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낸다!
내가 북치기로 남아 있었더라면,
포로로 감히지는 않았을 텐데!

오, 교수대여, 높은 집이여,
너는 참으로 끔찍해 보이는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
내가 그곳에 매달릴 것을 알기에!

병사들이 행진해 지나가고,
나와 함께 묵지도 않겠지,
혹 내가 누구였는지 묻거든,
근위중대의 북치기였다고 하라!

잘 있거라, 대리석이여!
산과 언덕들이여!
잘 있거라, 장교들이여,
하사관과 보병들이여!
잘 있거라,
장교들이여!
하사관과 척탄병들이여!
나는 맑은 목소리로 외친다,
너희에게 작별을 고하노라!
잘 있거라!

말러 / 교향곡 제5번 c#단조

G. Mahler / Symphony No.5 in c# minor

작곡	1901년~1902년
초연	1904년 10월 18일, 독일 쾰른
편성	플루트4(피콜로 겸함), 오보에3(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3(피콜로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겸함), 바순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6, 트럼펫4, 트롬본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작은북,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탐탐, 글로켄슈필, 휘,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70분

교향곡 2~4번에서 성악을 도입한 말러는 5번부터 7번까지 성악이 없는 순기악적 교향곡을 선보이게 된다. 그 첫 곡인 교향곡 5번은 1901년과 1902년 여름에 작곡됐고 1904년 10월 쾰른에서 초연됐다.

1901년 3악장부터 시작해 이 곡의 1, 2악장을 쓴 말러는 이듬해 3월 말러는 알마 마리아 쉰들러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여름에 4, 5악장까지 전곡의 열개를 완성한다. 4악장 ‘아다지에도’는 오늘날 ‘알마에 대한 말러의 사랑 고백의 장(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5악장은 매우 장려하고 밝은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1, 2악장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듯한 표현주의적 절규와는 표정이 사뭇 다르다.

1904년 초연에서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한 뒤 말러는 이 작품을 대대적으로 개작했다. 주로 ‘과잉된’ 오케스트레이션을 덜어내서 텍스처를 날씬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전 교향곡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대위법적 기법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5악장의 푸가에서 뚜렷하다. 당시 말러는 바흐의 ‘푸가의 기법’을 분석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I. 장송 행진곡 (Trauermarsch)

말러가 먼저 계획한 2악장의 전주곡적 성격을 띤다. 셋잇단음표의 강렬한 팡파르로 시작하고 현으로 서글픈 장송 행진이 이어진다. 장송의 묘사는 교향곡 1번과 2번에서 이미 드러낸 말러의 강박적 집착이기도 하다. 한껏 몰아친 뒤 다시 팡파르가 돌아온다. 우울한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선율이 시작된다. 새 선율이지만 장송행진곡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리듬과 분위기다.

II. 격렬하게, 최대의 격정으로 (Stürmisch bewegt, mit größter Vehemenz)

대체로 소나타 형식의 구조를 띤다. 시작 부분은 ‘격렬하게, 최대의 격정으로’라는 악상기호 그대로다. 플루트와 오보에의 새가 깹깹대는 것 같은 리듬이 쓸쓸한 제2주제를 이끌어낸다. 1악장 중간부에 등장하는 주제와 시작 음형부터 비슷하다. 재현부에서 예고 없이 밝고 당당한 금관의 코랄이 울린다. 다시 충격이 가해지고 1악장처럼 불이 꺼지듯이 끝난다.

III. 스케르초 (Scherzo)

이 곡의 씨앗이 된 악장이다. 시작부는 한가한 렌틀러(3박자 독일 민속 춤곡)이다. 호른 솔로 파트가 있다. 말러에게 느린 3박자 또는 렌틀러는 순수한 행복의 상징일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약간 수상쩍고 ‘꼬인’ 느낌이 든다. 리듬을 늦춰 현이 빈 왈츠의 느낌을 전한 뒤 렌틀러 리듬이 돌아오고, 팀파니의 강타와 함께 분위기는 한결 더 몽환적이 된다.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니 현이 앞서의 빈 왈츠 리듬과 비슷한 새로운 선율을 노래한다. 느긋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휘말려들 듯 속도가 고조된다.

소란의 와중에 나무딱딱이(홀츠클라퍼)의 낮은 음향이 끼어든다. 기묘한 흥분의 정점에서 꿈을 깨듯이 악장 첫 부분이 돌아오고 후반부는 더 빠르고 고조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한껏 소란한 백일몽같은 분위기에서 악장을 마친다.

IV. 아다지에도 (Adagietto)

말러 교향곡의 모든 악장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비스콘티의 영화 ‘베니스에서 죽다’의 주제음악으로 쓰이고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장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면서 이 악장에는 ‘죽음’과 ‘애도’의 분위기가 두텁게 칠해졌다. 그런데 이 악장이 그렇게 사용되는 데에는 강력한 반론이 있다. 이 악장은 ‘애도’가 아니라 ‘사랑’의 악장이라는 것이다. 말러 연구가인 아마추어 지휘자 길버트 카플란은 지휘자 빌렘 멩엘베르크가 “말러는 알마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이 곡을 전했다. 이 얘기를 말러와 알마 두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밝힌 일화와 말러 생전에 멩엘베르크가 남긴 녹음을 들어 이 악장이 기존보다 빠르게 연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러는 이 악장 악보 첫 페이지에 ‘매우 느리게’라고 적었다.

악장은 3부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중간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간부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조성의 탐미적인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곡의 주선율은 차이콥스키 오페라 ‘스페이드 퀸’ 중 바리톤 엘레츠키 공작의 아리아 ‘당신을 사랑하오’와 유사하다. 말러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빈 궁정오페라에서 ‘스페이드 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V. 론도-피날레 (Rondo-Finale)

말러는 이 악장 푸가 주제에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집의 ‘높은 지성애의 찬가’ 선율을 인용했다. 여러 주제가 거듭 되돌아오는 론도 형식이다. 시작 부분은 4악장 마지막 음과 같은 호른의 A음으로 시작해 바순이 ‘높은 지성애의 찬가’ 선율을 인용한다. 클라리넷이 코랄 주제로 이어받고 목관들이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클라리넷이 낙관적인 표정의 하행 선율을 연주한다. 푸가 주제를 비롯한 여러 주제들이 이어지고 섞이고 교차하며 거듭 찬란한 정점을 쌓아올린다.

마침내 코랄 주제가 트럼펫에서 찬연한 빛을 터뜨린다. 정점을 만끽한 악장은 여세를 몰아 우화적인 빠름 속에서 순간이 증발되어 버리듯이 곡을 마친다.

글 | 유윤종 (음악 칼럼니스트)

Journey
into
the

ROMANCE OF MEDIEVAL GERMANY

중세 독일의 낭만을 찾아서

2026.3.31. TUE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브루크너 / 교향곡 제4번 E♭장조, WAB 104 '낭만적'
A. Bruckner / Symphony No.4 in E-flat Major, WAB 104 'Romantic'

지휘 마렉 야노프스키
Conductor Marek Janowski

클라리넷 김한
Clarinet Han Kim



CONCERT OPERA

CARMEN

4.17. FRI 19:30 / 4.18. SAT 19:00

롯데콘서트홀

지휘 / 정명훈
카르멘 / 알리사 클로소바 돈호세 / 갈레아노 살라스
에스카미요 / 김병길 미카엘라 / 김순영
연출 / 업숙정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KBS교향악단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광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Matthias Wollong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악장)
플루트	송다인
클라리넷	조인혁
호른	Katy Woolley
트롬본	Jean-Philippe Navrez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 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회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c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권정숙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종윤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옥균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양영은 KBS 보도본부 기자 유수엽 유순신 (주)유애포터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중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희재 노무사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원희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K** www.kbssymphony.org

● **f** facebook.com/kbssymphony
●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